항우의 기개로 정진하라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上無片瓦(상무편와)하고
下無卓錐(하무탁추)로다.
日往月來(일왕월래)에
不知是誰(부지시수)오.

위로는 한 조각 기와도 없고 아래로는 송곳 꽂을 데도 없도다. 해가 지고 달이 떠도 알 수 없어라. 이 누구인가?

산문출입을 삼가며 하안거를 결제하는 수선납자여!

가난하기는 범단(范丹)과 같으나 그 기개는 항우(項羽)와 같도다. 육화로 화합하며 화두참구에 힘쓰니 6월 염천이 오히려 서늘하도다.

요요하여 한 물건도 없음을 괴이하게 여기지 말라.

그대의 집 살림살이가 본래 그러하며, 한결같이 공(空)하여 물(物)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묘하게 문수의 지혜경계에 나아가니 삭풍이 매우 차서 서리와 눈이 하늘에 가득하고, 높은 보현의 행문(行門)을 밟으니 훈풍이 불어와 푸르고 노란 빛이 땅에 가득하도다.

直指單傳密意深(직지단전밀의심)하니
本來非佛亦非心(본래비불역비심)이라.
分明不受然燈記(분명불수연등기)하니
自有靈光耀古今(자유령광요고금)이로다.

직지단전의 비밀한 뜻 깊으니 본래 부처도 아니고 또한 마음도 아니로다. 분명 연등의 수기를 받지 않았으니 스스로 신령스런 빛이 있어 고금에 빛나도다.

세 개의 서까래 아래, 일곱 척 자리 위

해인총림 방장 벽산 원각 대종사



고봉원묘(高峰原妙) 선사께서 법상에 올라 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제대중들이 10년 20년 내지 일생 동안 세상을 떠나 모든 반연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이 일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안을 타파하지 못했다면 도대체 그 병통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전생의 선근(善根)여부를 탓할 일이 아니며 스승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고 탓할 일도 아니며 시절인연이 도래하지 않았다면서 스스로를 위로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냉정하게 따져본다면 그 원인은 바로 매 순간 순간 치열하게 정진하지 않았던 결과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답은 단 한마디라고 하겠습니다.

"삼조연하(三條椽下)요 칠척단전(七尺單前)이로다. 세 개의 서까래 아래와 일곱 척 자리 위에 있느니라."

서선계도(西禪繼圖)선사가 법상에서 말씀했습니다.

"낱낱의 국토마다 한 분 한 분의 부처님이 계시고 낱낱의 티끌마다 한 분 한 분의 미륵불이 계신다. 만약 이런 도리를 제대로 모르겠다면 삼조연하 칠척단전에서 분명하게 궁구해야 하리라."

선지식께서는 모두 삼조연하 칠척단전에서 애써 정진을 주문했습니다. 오늘부터 해제 때 끌고 다니던 지팡이를 마루 앞에 세우고 걸망을 높이 걸어두고서 구십일 동안 서까래 3개의 넓이 그리고 일곱 자 길이의 선판(禪板)자리에서 오로지 애써 정진해야 될 것입니다. 삼조연하 칠척단전의 공간만 있으면 공부처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대로 수행한다면 삼조연하가 온우주가 되겠지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칠조단전이 그대로 한 평짜리 감옥이 될 것입니다. 깨달음에 대한 간절함만 있다면 그 공간은 우주를 포용하고도 남겠지만 간절함이 없다면 한 톨의 겨자씨조차도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임제가 선당(禪堂)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황벽선사가 와서 이 광경을 보고는 주장자로 칠척단전 선상 끝을 한번 내리쳤습니다. 임제는 고개를 들어 황벽을 한번 힐긋 쳐다보더니 다시 눈을 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황벽은 다시 삼조연하 아래 선상 끝을 주장자로 내리친 다음 상판이 앉아있는 자리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일수좌가 좌선하는 곳을 보고는 말했다.

"하판에 있는 임제 후배는 좌선을 하는데 그대는 가장 높은 수좌자리에 앉아서 망상을 피우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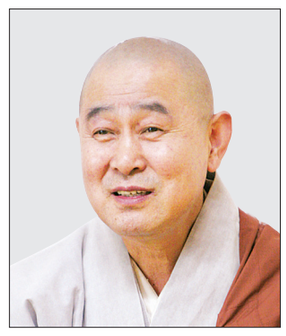
삼십년을 삼조연하 아래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3하(夏)를 서까래 아래에서 제대로 정진하는 공부 인을 당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는 시간의 길이나 공간의 넓이가 아니라 공부의 내용과 깊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삼조연하 아래 칠척단전 위에서 잘 살면 수행 터가 되지만 잘못 살면 바로 망상 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제대중은 구십일동안 삼조연하 칠척단전에서 쌀 없는 밥을 씹고 국물 없는 국을 마시면서 오직 애써 정진 합시다.

설산육재무일연(雪山六載無一椽)하니 작소관정노천슬(鵲巢冠頂蘆穿膝)이로다.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고행하실 때 머리 위에 서까래가 없었으니, 까치는 정수리에 집을 지었고 무릎사이로 갈대가 뚫고 나왔도다.

생각은 하늘의 구름과 같다

금정총림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



性空海中寂寂寥(성공해중적적요)
業風起時動成波(업풍기시동성파)
風靜水波一切同(풍정수파일체동)
何處風吹萬波高(하처풍취만파고)

물과 파도는 달리 보여도 둘이 아니다. 성품의 고요한 바다 가운데는 고요하고 요요할 뿐이네. 업의 바람이 일어나면 파도가 되어 움직이네! 바람이 고요하면 파도와 물이 하나가 되는데 어느 곳에서 바람이 불어 일만 파도가 일어나는가?

물이 파도고 파도가 물이다. 어디서 바람이 불면 잔잔한 바다에 파도가 일어난다. 바람이 그치면 파도가 잠을 자고 고요해진다. 우리 마음도 바닷물과 같은 것이다. 평상시에 고요한 마음이 어떤 경계에 부딪히면 화가 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마음이 흔들린다.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 맑고 고요한 마음 가운데서 온갖 생각의 파도가 일어나서 자신을 흔드는 것이다.

진여자성을 깨달은 도인의 마음에서 보면 물과 파도가 달리 보여도 근본은 똑같은 바닷물인 것처럼 모든 것은 자신이 그려낸 생각의 그림자임을 확연하게 알고 나면 파도와 물이 둘이 아닌 한 바닷물이고 똑같은 마음에서 일어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에 이끌리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행주좌와 어묵동정 그대로가 자신의 한마음이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온갖 시비 분별 속에서도 마음을 흔들지 않고 맑고 여여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물과 파도가 둘이 아닌 부처 님 마음으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마대사는 중국 선종의 시조가 된다. 달마대사에 법을 이은 동토의 2조가 혜가대사이시다. 혜가 대사의 법을 이은 3조 승찬대사이시다.

승찬은 풍병을 앓고 있었다. 몰골이 말이 아니게 바짝 말라서 보는 이의 마음까지 안쓰러울 정도이다. 인생에 무상함을 느끼고 구도 행각을 나서게 된다. 참다운 삶은 무엇일까? 삶과 죽음이란 커다란 숙제를 풀기 위해서 2조 혜가 대사를 찾아가 용기를 내어서 물었다.

"큰스님! 저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렇게 몹쓸 병을 앓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시어 저의 죄업을 소멸하고 저의 생명을 구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큰 절을 세 번 올리고 거듭 간청하였다.

혜가 대사는 병자의 간절한 호소를 듣고 "오그런가. 내가 그대의 죄업을 소멸시켜 줄 터이니 그대를 괴롭히는 죄업을 찾아서 이리 내놓게나"라고 말했다.

승찬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죄업을 찾기 위하여 마음속 구석구석 찾고 또 찾아보아도 마음 어느 구석에서도 자신을 괴롭게 하는 죄업을 찾을 수가 없었다.

"큰스님! 아무리 찾아보아도 제 마음속 어느 구석에서도 죄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업을 찾을 길이 없다면 너의 죄업은 모두 참회하고 마쳤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승찬은 모인 것은 내 생각이 만들고 스스로 죄업에 속박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활연대오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 자성이 없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생각의 그림자임을 확연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음도 텅 빈 하늘처럼 맑고 고요한 것입니다. 맑은 하늘에 온갖 구름이 일어나고 또 구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털구름 먹구름 목화 구름 양떼구름 온갖 모양으로 변화하고 바뀌지만 다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생각은 마치 하늘에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그림을 그립니다. 구름은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지 고정된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죄라는 것도 공하고 생각도 공한 것입니다. 근본 마음의 실체는 파란 하늘과 같은 것입니다. 맑은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一心淸淨(일심청정)하고 無垢無念(무구무념)이면 處處安樂(처처안락)이요 有心淨土(유심정토)니라.

한 마음이 맑고 청정하면 때 묻거나 물들지 않으며 곳곳이 안락국토요 맑고 청정한 극락정토입니다.

하안거 중에 대중이 오직 일념으로 정진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자성을 확철하게 깨달아 모두 성불하시길 바랍니다.

5월 22일 갑진년 하안거 결제를 맞아 전국 100여 선원에서 약 2000명의 수좌가 방부를 들고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조계종 종정예하를 비롯해 각 총림 방장스님들의 법어를 게재합니다. 원고는 5월 17일 기준 발표된 법어로, 모든 법어는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부처님 가르침인 '佛法'을 보시하는
법보시 공덕은 보시 공덕 중 으뜸입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